

문화콘텐츠 DB분류 및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truction and Cultural DB Classification for Multimedia Contents.

문병채

목포대학교

Moon Byung-Chae

Mokpo National Univ.

요약

본 논문의 주된 내용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신경향에 부합하는 새로운 분류체계를 연구한 것으로, 연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의 연구를 통해,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신경향에 부합하는 새로운 분류체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 듀이십진분류법을 지양하고 인터넷 검색시스템 정보 분류 방식을 따랐으며,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통합 또는 세분화가 가능한 열린 분류안을 지향했다. 또한, 기획성 분류군을 설정하여 지역 및 문화의 특수성, 이용자의 개인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제별 분류와 기획성 분류를 혼합한 형태로 구성하는 것을 권했다. 주제별 분류안은 학술적으로는 유용하지만, 데이터가 항목별로 균등하게 반영되기 어렵고 일반인의 관심을 다양하게 담아내기 어렵다. 따라서 기획성 분류를 가미함으로써 문화의 특징을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1.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이다. 정보화 시대의 「문화자원 콘텐츠 개발사업」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문화를 알리고 함께 향유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문화의 산업화 견지에서 콘텐츠 개발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는 지역의 정체성을 찾는 길이며, 더 나아가 지역 혹은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문화의 맛'이 느껴지는 콘텐츠여야 한다는 말에 대한 이론(異論)은 있을 수 없다. 문화의 맛이 들어있어야 전달되는 느낌과 이미지로부터 감동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맛있고 영양가 높고 값도 싸서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쓰면서도

즐거워하는 문화음식"의 콘텐츠 제작은 '손맛'을 필요로 한다. 손맛은 제작환경과 기술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고 깊이 체험하는 속에서 나온다. 그래서 「문화자원 콘텐츠」의 개발은 최상의 기술보다는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기획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최상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본 연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는 측면에서 새로운 분류체계에 대해 접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화콘텐츠 시대의 문화분류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새로운 모형설계를 요하고 있다.

첫째, 기술적인 표준화 방안을 벗어나 실제 자료를 조사하고 현지의 실정에 맞는 항목 중심으로 설정이 요구된다.

둘째, 또한 일반인이나 연구자 모두가 보다 쉽고 다 가설 수 있도록 실제적인 사항이 구체적으로 다루어

지는 항목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문화자료의 분류는 다른 분야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민속자료는 인류학 분야와 연계·통합하여 한 지역의 문화를 아우를 수 있도록 목록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모두 포괄하는 분류체계가 되려면, 기존의 학문적인 분류안을 벗어나야 할 것이다. 즉, 기존의 학문적 기반에 둔 분류안과 대중적 관심에 기반을 둔 기획성 분류안의 사례들을 검토한 후 이들을 적절히 조화해내어 두 가지 상이한 목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복합적 분류안 개발이 필요하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문화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절한 문화자원 분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연구되었다.

첫째, 분류 시에 사실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그 사실이 처해 있는 전체 맥락이 손상을 최소화하는 분류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둘째, 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한 콘텐츠 개발에 주안점을 둘 것이나, 문화자원 자체를 학문적 수준에서 정리할 것이냐에 대해 많은 고민했다. 콘텐츠 개발에 주안점을 두면, 개인의 삶과 생활의 가장 일차적인 관심사항이 1단계 대분류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반면에 학문적 분류는 이성적 논리에 의해 개념단위로 기본적인 지식체계에 기반을 두고 세부 학문영역에 따라 먼저 1단계 대분류부터 규정되어져 가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듀이 십진분류법을 들 수 있다.

셋째, 기존의 학문적 분류체계들은 물론이고 최근의 정보화 시대에 새롭게 대두된 지식검색 툴 까지 종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목적에 부합한 분류방법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었다.

넷째, 문화재청의 문화재정보시스템이나 전남도청의 다도해테마파크시스템 등 관련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있는 개선 내용들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문제점이 무엇이고 요구내용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했다.

끝으로, 이들을 종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학문적 기반에 둔 주제별 분류안과 대중적 관심에 기반을 둔 기획성 분류안의 사례들을 검토한 후 이들을 적절히 조화해내어 두 가지 상이한 목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복합적 분류안을 정리해냈고, 이를 토대로 분류·정리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신경향에 부합하는 새로운 분류체계를 연구한 것이다. 즉, 듀이십진분류법을 지양하고 인터넷 검색시스템 정보 분류 방식과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통합 또는 세분화가 가능한 열린 분류안을 연구한 것이다. 기존의 학문적 분류안이 학술적으로는 유용하지만, 데이터가 항목별로 균등하게 반영되기 어렵고 일반인의 관심을 다양하게 담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2. 문화콘텐츠 DB의 분류

1) 분류체계의 비교검토

분류안들의 특성을 파악 정리하기 위해, 먼저 기존의 분류안을 면밀히 조사하고 정리하였다. 연구기관과 학회 및 개인 연구자들의 분류안을 망라하여 정리를 한 후 상호비교를 통해 그 특성과 한계를 논했다. 즉, 기존의 분류안들이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왜 맞지 않는지, 기존 콘텐츠개발이나 문화DB구축에 쓰인 분류안들이 왜 체계화되지 못했다고들 하는지, 등에 관한 논점을 이야기했다.

먼저, 20세기 기본적인 지식정보의 분류로서 아직까지 대학의 학과편성, 각급학교의 교과편성, 그리고 학술단체의 학문분류표에 응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존 분류체계인 '듀이십진분류체계'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듀이십진분류표는 다음 세 단계로 구성

되어 있다.

- 주류표 - DDC 십진체계의 일차적 구분이며, 가장 일반적 분류기호이다.
- 주강표 - 각 주류는 10개의 강목으로 나누어지며 이들 강목은 분류기호의 두 번째 숫자에 표시된다.
- 주목표 - 각각의 강목은 다시 10개씩 요목으로 나누어지며, 이들 요목은 DDC분류기호의 세 번째 숫자에 표시된다.

주류표 - 000 총류(Generalities)

100 철학(Philosophy & psychology)

200 종교(Religion)

300 사회과학(Social Sciences)

400 어학(Language)

500 순수과학(Natural sciences & mathematics)

600 기술과학(Technology(Applied Sciences))

700 예술(The art)

800 문학(Literature(Belle-lettres))

900 역사(Geography & history)

이러한 체계를 갖는 '듀이십진분류법'의 특징은 ① 전체를 출발점으로 개념을 축소화하는 방식, ② 이성적 논리에 의해 개념단위로 분류, ③ 개념의 범주를 대개념에서 점차 소개념으로 축소 분류하는 층서구조, ④ 논리적 개념체계에 의해 우주와 사물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강한 신뢰를 전제, ⑤ 인류역사의 보편적 발전법칙에 입각한 이념에 대한 강한 믿음, ⑥선형적·수직적 사고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다음에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신경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인터넷 검색시스템 정보 분류체계'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의 예로, 대표적인 인터넷 검색시스템의 하나인 'Yahoo.com'의 분류체

계'를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이 분류체계에서 주목되는 점은 뉴스와 미디어, 오락, 레크리에이션과 스포츠, 건강 등의 분야가 1단계 대분류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분야는 듀이십진분류에 따르면 사회과학이나 예술, 기술과학 등의 몇 단계 하위항목에나 설정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Yahoo에서는 이런 항목이 오히려 대분류 항목에 자리잡고 있다. 이런 항목들은 개인의 삶과 생활에서 가장 일차적인 관심사항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분류체계의 신경향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 있다. 즉 거대한 논리적 체계보다는 개인의 일상적 관심을 따르고 있다는 뜻이다.

▪ Business & Economy : B2B, Finance, Shopping, Jobs...

▪ Computers & Internet : Internet, WWW, Software, Games...

▪ News & Media : Newspapers, TV, Radio...

▪ Entertainment : Movies, Humor, Music...

▪ Recreation & Sports : Sports, Travel, Autos, Outdoors...

▪ Health : Diseases, Drugs, Fitness...

▪ Government : Elections, Military, Law, Taxes... Regional Countries, Regions, US States...

▪ Society & Culture : People, Environment, Religion...

▪ Education : College and University, K-12...

▪ Arts & Humanities : Photography, History, Literature...

▪ Science : Animals, Astronomy, Engineering...

▪ Social Science : Languages, Archaeology, Psychology...

▪ Reference : Phone Numbers, Dictionaries, Quotations...

결과적으로, '인터넷검색시스템 정보 분류체계'의 특징은 ①개인을 출발점으로 하여 그 관심을 구체화하는 방식, ②한 개인의 관심대상을 기준으로 생활의 논리에 따라 영역단위로 구분, ③영역의 범주에 연상될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을 규모나 개념규모에 관계없이 구체화되는 항목을 나열적으로 분류(하이퍼텍스트 이용), ④개념단위가 그 자체로 독립적인 한 단위로 존재 : 체계로부터 자유로움. ⑤ 비선형적·수평적 사고 등을 이야기 할 수 있다.

2) 요구사항

이런 관점에서 볼 때,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신경향을 반영할 수 있는 문화자원 분류의 '새로운 표준안'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항목단위의 표준화 문제이다. 듀이십진분류법과 인터넷 검색시스템 정보 분류체계는 개념 차이를 크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듀이 분류안과 같은 주제별 분류안은 학술적으로는 유용하지만, 데이터가 항목별로 균등하게 반영되기 어렵고 일반인의 관심을 다양하게 담아내기 어렵다. 즉, 학문적 영역의 카테고리화에 초점을 둔 듀이의 분류법은 정보화시대에 있어 이제 더 이상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대는 새로운 분류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20세기 지식정보의 분류에서 21세기 정보사회의 신경향을 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터넷검색시스템들은 표준안에 대한 전문가적 연구 없이 전산학적인 데이터베이스 기술적으로만 접근한 나머지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분류가 사회, 역사, 민속 등의 항목 속에 다양한 문화자료들이 분류체계의 기준 없이 뒤섞여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체계화되어 있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내용구성의 표준안 문제이다.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크게 여섯 가지 사항 포함을 요구한다. 첫째는 문화의 잠재적 가치를 자원화 하는 방향에 특히

주안점을 두고 내용을 구성, 둘째는 시간이 지난 정보들을 가능한 최신 정보로 교체토록 했으며, 통계수치 하나하나에 신경을 씌워서 학자들의 학문적인 연구활동이나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실제적 도움을 주는 사이트로 개발, 셋째는 섬 이야기로 대변되는 탐색하기 쉬운 콘텐츠이면서 빈약한 플롯으로 짜여진 거짓대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플롯구성, 넷째는 이미 잘 알려진 정보소개 보다는 전문가에 의해 가공된 정보와 새로운 시각에서 가치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이들 중심으로 풍부한 DB가 되도록 구축. 예들 들어, 자연경관이 갖는 쉽게 풀이한 학문적 지식 그리고 그들이 지닌 의미, 바다를 주로한 환경을 무대로 살아온 주민들의 환경인지체계, 그 속에 녹아 있는 애환에 관한 기술 등이 그들임, 다섯째는 단순한 텍스트 입력과 망라적인 검색기능에 그치지 않고 연구·가공과정을 거친 자료들을 체계적인 분류안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자료들의 효용성을 높이고 가치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현재 웹문서의 디렉토리 검색엔진들은 인터넷상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주제의 문서들을 대상으로 검색하며, 그를 위해 주제어 또한 모든 주제를 망라하고 있으나 용어통제를 위한 도구개발에서는 소홀하여 효율적인 검색이 되지 못하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소러스를 확장시키고 지능형 검색엔진 가미와 함께 일반주제와 특정주제로 특성화하여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문화콘텐츠 DB분류

(1) 자연사문화자원의 분류

① 주제별 분류안

주제별 분류안은 학문적 영역과 성격 하에서 자연자원의 체계적인 분류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는 학술정보의 분류에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대중적인 관심을 끌기 어려운 난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는 주제별로 분류하되 특화되는 분류항을 하위항목에 설정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자연자원의 주제별 분류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위치와 영역	위치	수직적/자연지리적/관계적위치
	영역	육역/해양
지형과 지질	지형	산지/화산/하천/해안/해저/용식/호소
	지질	지체구조/지층/암석/토양
육수와 해수	육수	하천수/호소수
	지하수	자유수/주수/피압수
	해수	해류/조류/파랑
기후와 식생	식생	초본/산림/식생대
	기후	기온/강수/바람/서리/안개/강설(눈)/기후대

② 기획성 분류안

자연자원에 관한 기획성 분류는 일반인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항목화 하는 것으로 화제성 있는 항목을 강조하여 부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자의적인 분류가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분류안은 대중적인 관심을 끌 필요가 있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표 2] 자연자원의 기획성 분류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생태 환경	자연생태와 경관	토질/광물/기후/계절특성/지형
	동·식물	천연기념물/해양/육지/야생조류
관광 정보	관 광 지	산/계곡/해변/해수욕장/유원지(휴양지)/공원/바위/레저
	교 통	선박운항/도로상황/터미널(선착장)정보/랜타카/기타
	숙 박	호텔/콘도/장(여관)/민박/야영/기타
	음 식	향토음식/회집/휴게소/상가 등 기타
	특 산 물	지역특산물/판매소
소개 및 정보	쇼 핑	백화점/시장/물류센터/기타
	관 공 서	행정/교육/금융/교통·통신/의료/기타
경제 정보	기타기관	여행사/극장/마을회관/수련원/교회/기타
	산업정보	농업/임업/어업/양식업
	사업시설	식품가공/공장·공단/기타
	특 산 물	지역특산물/특용작물

③ 복합분류안

그러나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효율적이

면서도 유용한 분류가 되기 위해서는 개개인 관심대상을 기준으로 생활의 논리에 따라 영역단위로 구분하고, 영역의 범주에 연상될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의 규모나 개념 규모에 관계없이 구체화되는 항목을 나열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택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본 자연자원의 분류는 이성적 지식에 예측된 관념을 벗어나 친근하고 편안하며 재미있기도 한 자연환경에 대한 지식습득이 이루어지게 하는 분류방법을 택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각 사항들의 내용을 적절히 조화해 낼 수 있는 방법인 주제별 분류도 아니고 기획성 분류도 아닌 내용에 따른 특성을 적절히 가미한 아래와 같은 복합적 분류방안을 고안해 냈고 이에 따라 이루어졌다.

[표 3] 자연자원의 복합성 분류안

상위 분류	하위 분류
1. 위치/형태	위치/규모/모양/요충지
2. 기후/풍토	기후/토질/풍토/해양환경
3. 숲·동·식물	숲(산림)/풀/나무/새/야생동물
4. 습지/해양	하천/샘(약수)/습지/바다
5. 지형/지질	지형/지질/지체구조/산/평야(들)/갯벌/암석(기암괴석)/사구
6. 지역산물	농·축산물/지하자원/광산/해초류(갯짓)/어족/특산물
7. 산업경관	포도존(조망점)/포구(선착장)/다리/길/전통민가·마을/토지형태
8. 공원/관광지	천연기념물/명승지/늪/습지/해수욕장/화석분포지/농원/공원
9. 환경인지	토착지명/물메/바람인지
10. 개발계획	지역개발/개발계획(안)/개발사업/자원활용

(2) 선사·역사 및 문화재 분야 분류

① 주제별 분류안

문화재청 분류안은 주제별 분류안에 가깝게 되어 있다. 문화재 상세 검색 중 전문가마당의 분류체계를 보면 대분류는 유형문화재, 사적, 기념물, 무형문화재, 기타류 등 5개 항목으로 구분하였고 각 항목별 중분류와 소분류는 다음 표와 같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유형문화재	지정종목	전체 국보 보물 중요민속자료 시도유형문화재 문화재 자료
	세부유형	석조문화재 목조문화재 전적류 서적류 회화류 조각류 공예류 과학기류 유물유품
사적	지정종목	전체 사적 시도기념물 사적 및 명승 명승
	세부유형	서원 고분 성지(성곽) 도요지 전지 고택 종교 유적 사고지 봉수대 사묘,제단 등 사지 패총 원지 우물 독립유적지 유물매장해역 경승지 선사유적 궁지 묘 비지 유지 지식묘 개화기건축 생가(지) 사적지 기타
기념물	지정종목	전체 천연기념물 시도기념물
	세부유형	노거수 자생목한지 어부림 서식지 양금 야생 광물 희귀종 학술림 호안림 번식지 국제보호조류 어류 동굴 자생지 방풍림 도래지 야생조류 양축 곤충 천연보호구역
무형문화재	지정종목	전체 중요무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
	구분	음악 놀이와 의식 공예기술 무용 음식 연극 무예
기타류	지정종목	전체 중요민속자료 시도유형문화재 문화재자료 시도민속자료 시도기념물
	세부유형	생활용구 지수 신앙자료 민속마을 복식 기타민속자료 기타문화재

분류가 매우 세밀하다. 따라서 전국 차원의 문화재 정리에는 유용하지만 도서·연안의 특수지역을 대상으로는 하기에는 지나치게 상세하다. 따라서 이를 문화 일반과 연계하여 새롭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② 기획성 분류안

한국역사정보의 포털사이트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포털사이트는 기획성 분류안에 가깝게 설계되어 있다.

<p>형태별 분류 : 고도서 / 고문서 / 고전국역총서 / 도서 / 문서 / 신문 / 음성자료 / 잡지 / 사진자료 / 연표 / 사진 / 규장각목록 / 규장각해제 / 고지도 / 책판</p> <p>내용별 분류 :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분야별연표 / 한국 근현대 인물자료 / 한국사료총서 / 한국근현대잡지자료 / 한국근현대신문자료 / 국내외 항일운동문서 / 한국 독립운동사 / 한민족 독립운동사 / 직원록자료 / 회사자료 / 중추원조사자료 /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 친일과관련문헌 / 반민특위조사기록 / 이승만관계서한자료 / 미국의대한정책사자료</p> <p>• 민족문화추진위원회 고전국역총서 / 한국문집총간 / 승정원일기 / 일성록</p> <p>• 서울대 규장각 목록 / 해제 / 고도서 / 고문서 / 고지도 / 근대정부기록류 / 일성록 / 내각일력 / 승정원일기 / 책판</p> <p>•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궁중문화역사자료 / 계보족보 / 지리지 / 일기류 / 한글소설류 / 명가소장고문서(지방사회경제사자료) / 한국구비문화학대 / 한국민속음악대관 / 한국문화화상자료 / 한국방언자료집</p> <p>•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 구한국 외교문서</p> <p>• 한국국학진흥원 고도서</p> <p>•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관계자료집 / 여성변천사 / 여성인물 / 여성관련 신문,잡지 / 현대 북한 여성 / 사진으로 보는 한국여성사</p>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분류체계를 더 깊게 보면, 형태별 분류와 내용별 분류 두 종류의 분류안을 통합 택하고 있다. 이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이 각 기관별 자료의 디지털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별 소장자료의 자료적 특성에 따른 분류 방식이다. 여기에는 역사학의 기본적인 분류방식, 즉 시대사, 분류사 등의 구분은 전혀 적용되고 있지 않다. 이처럼 웹사이트의 사용 목적에 맞추어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지 역사학의 기본분류는 고려대상이 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여기서도 체계의 기본 틀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사이트는 대분류는 역사와 인물/문학과 예술/종교와 사상/생활과 민속/문화재를 찾아서/한국문화강좌/한국학 마당 등으로 되어 있다. 분류는 중분류까지만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③ 복합분류안

주요 관련 웹사이트의 분류체계 상 장단점을 비교하고, 도서·연안 문화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합 분류안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제시하면 선사·역사 및 문화재 분야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역사	연혁	시기
	마을유래	리명
	사건	사건
인물	입도조	입도조
	유배인	유배인
	학자·문인	학자·문인
	효자·열부	효자·열부
	무관·명장	무관·명장
	정치인	정치인
	문학·예술	문학·예술
종교·교육인	종교·교육인	
민족운동가	민족운동가	
기타	기타	
문화재	해양문화	해저유물 해저유적 패총
	매장문화	유물·산포지 지식묘 입석 도요지
	역사문화	산성·봉수 불교유적 유교유적 유배유적 고문헌·고문서 유물·유품 기념물 기타
	예술문화	불화 영정 회화 금세 도자기 기타
	무형문화	중요무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시도기념물 기타

(3) 민속(인류학) 분야 분류

① 주제별 분류안

이 안은 민속자료를 분류하는데 그동안 많이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학술 정보의 분류에 적합하게 짜여져 있어 일반인들이 누구나 쉽게 다가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즉, 일반인들이 누구나 쉽게 민속 자료를 찾고, 이를 활용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분류된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사례 4. 최인학 외, 『한국민속학 새로 읽기』, 민속원, 2001.

대분류 민속	중분류 마을공동체와 친족생활 물질경제생활 공동체의 시간생활 공동체의 의례생활	소분류 마을 생활, 가족과 친족생활 의식주생활, 기술경제생활 시간과 역법, 설과 대보름, 여름과 단오, 가을과 추석, 겨울과 동지 출산의례, 성년의례, 혼인의례, 장례와 제례 민속신앙생활 놀이와 구전전승 환경과 민속
-----------	--	---

사례 1. 출처 :장철수, 『한국학 연구 50년 점검: 16 한국민속학편 : 민속학연구 50년사』, 『한국학보』 22, 일지사, 1996.

대분류 민속	중분류 사회민속 경제민속 의료민속 언어민속 연희민속 신앙민속 예술민속	소분류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생업과 기술 설화, 민요·무가·판소리·속담·수수께끼·기타 평생의례·세시의례·연회·놀이 민간회화, 음악·무용, 공예
-----------	---	--

② 기획성 분류안

자료의 용도에 따른 기획성 분류안이 가능하다. 이 분류는 일반인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항목화하여 대중적인 관심을 끌 수 있다.

기획성 분류안은 화제성 있는 항목을 강조하여 부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자의적인 분류가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사례 2. 출처 이두현·장주근·이광규, 『한국민속학개설』, 민중서관, 1974.

대분류 민속	중분류 마을과 가족생활 (부락, 가족과 친족, 관혼상제) 의식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민간신앙 (서설, 무속, 가신신앙, 동계, 유교제례) 세시풍속 (동절의 세시풍속, 하절의 세시풍속, 추동절의 세시풍속) 민속예술 (민속악과 민속무용, 민속극, 민속 공예) 구비문학 (서설, 민요, 설화, 무가, 판소리, 속담과 수수께끼, 구비문학의 전통)	소분류 마을과 도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문화, 가족과 친족 농경의 민속, 어업의 민속, 사냥의 민속 통과의례의 의미, 기자(新子)습속, 혼인의례, 환갑의례, 조상숭배와 조상신 설과 보름의 민속, 단오의 민속, 추석의 민속, 동지오 세밀 탈과 탈춤, 무속과 춤, 풍물 : 연희와 협동 무속신앙, 가정신앙과 공동체 신앙, 풍수신앙, 민간속신 설화, 민요, 무가, 판소리, 속담, 수수께끼, 민간속신어
-----------	--	---

[표 4] 기획성 분류안 (도서민속)

상위분류	하위분류
섬 생활	어촌의 음식 / 어촌의 민가 / 어촌의 세시풍속 /
고기잡이	한국의 어선 / 서남해의 어구 / 김과 미역 / 해녀 / 조기잡이
민속신앙	한국의 해양신앙 / 한국의 풍어제 / 서남해의 마을신앙
민속예술	강강술래 / 산다이 / 서남해의 군고 / 어촌의 장례놀이
구비전승	임도조 이야기 / 한국의 도깨비

사례 3. 출처 김동권, 『韓國民俗學』, 새문사. 2001.

대분류 민속	중분류 사회와 민속 생업과 민속 인간의 일생	소분류 마을과 도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문화, 가족과 친족 농경의 민속, 어업의 민속, 사냥의 민속 통과의례의 의미, 기자(新子)습속, 혼인의례, 환갑의례, 조상숭배와 조상신 설과 보름의 민속, 단오의 민속, 추석의 민속, 동지오 세밀 탈과 탈춤, 무속과 춤, 풍물 : 연희와 협동 무속신앙, 가정신앙과 공동체 신앙, 풍수신앙, 민간속신 설화, 민요, 무가, 판소리, 속담, 수수께끼, 민간속신어
-----------	-----------------------------------	---

③ 복합 분류안

학문적인 분류안과 기획성 분류안을 결합하는 복합 분류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번 다도해 문화정보 통합시스템에서 사용한 분류 체계이다. 이 분류안은 기존의 학문적인 분류안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어려웠다는 점을 일반인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성 분류안을 결합 시킨 체계이다. 또한 여기에 일반의 학문적인 분류 체계와는 다르게 다도해라는 점을 부각 시켜 분류안을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민속문화를 생활민속, 사회민속, 생업(산)민속, 예능민속, 신앙민속, 구비전승으로 분류하여 민속문

화의 전반을 이 분류체계에 수렴했다. 이번 다도해 문화정보 통합시스템에서 채택한 복합 분류안은 아래와 같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주제
민속	생활	의생활	의례복, 작업복
		식생활	전통음식
		주생활	민가, 어가
		세시풍속	세시행사, 명절, 차례, 성묘, 기타
	사회	가족과 혼인	가족제도, 상속 등
		친족	집성촌, 동족마을 등
		공동체와 지역조직	사회단체, 어촌계, 상두계 등
		종교	종교 시설 현황, 기독교, 불교 등
		교육	교육현황과 시설, 초등학교 등
		생활권	생활권 등
		주요기관	주요기관과 공공시설 등
	어로/생산	농업	생애담, 농기구
		어업	어업현황, 어업력, 어장의 이용과 규제, 도구와 기술
	예능	민속놀이	개인놀이, 공동체놀이
		일생의례	출생, 관례, 혼례, 장례, 제례
		개인신앙	가신신앙, 고사
	신앙	공동체신앙	당제, 깃제, 기우제
		구비전승	설화 민요

(4) 분류체계 종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연	위치/형태	위치와 거리, 모양과 형태, 요충지
	기후/풍토	기후, 토질, 풍토, 해수환경
	숲/동·식물	숲과 나무, 풀과 약초, 새
	습지/해양	생과 약수, 하천, 호소, 해수
	지형/지질	지질, 지형, 산, 들, 암석(기암괴석)
	지역산물	지하자원, 농·축산물, 해조류, 어류·어족, 토속 음식, 특산물
	인문경관	포토존, 포구경관, 다리와 길, 주거경관
	공원/관광지	낚시터, 해수욕장, 농원, 국립(도립)공원, 자연공원
	환경인지	장소인지, 물때, 바람인지
	지역개발	개발계획, 사업, 활용방안 및 사례
역사	연혁	시기
	마을유래	리명
	사건	사건
민속	생활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세시풍속
	사회	가족과 혼인, 친족, 공동체와 지역조직, 종교, 교육, 생활권, 주요기관
	어로/생산	농업, 어업현황, 어업력, 어장의 이용과 규제, 도구와 기술
	예능	민속놀이
	신앙	일생의례, 개인신앙, 공동체신앙

구비전승 민요, 설화

인물	임도조	임도조
	유배인	유배인
	학자·문인	학자·문인
	효자·열부	효자·열부
	무관·명장	무관·명장
	정치인	정치인
	문학·예술	문학·예술
	종교/교육인	종교/교육인
	민족운동가	민족운동가
	기타	기타
문화재	해양문화	해저유물, 해저유적, 패총
	매장문화	유물산포지, 지식묘, 입석, 도요지
	역사문화	산성·봉수, 불교유적, 유교유적, 유배유적, 고문헌·고문서 유물·유품, 기념물, 기타
	예술문화	불화, 영정, 회화, 글씨, 도자기, 기타
	무형문화	중요무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시도기념물
	기타	기타

3. 문화콘텐츠 시스템구축 실례

1) DB 원시데이터 현황

대분류	중분류	멀티미디어	문서류	이미지	총합계
문화재	매장문화		18	48	66
	역사문화		10	9	19
문화재 합계		28	57	85	
민속	구비전승	12	136	28	176
	사회민속		15	12	27
	생업민속	2	34	52	88
	생활민속		52	42	94
	신앙민속		15	33	48
예능민속		10	12	22	
민속 합계		14	262	179	455
역사	마을유래		61	61	122
	사건		6	5	11
역사 합계			67	66	133
인물	무관명장		1	1	2
	인물 합계		1	1	2
자연환경	개발계획		2		2
	공원과관광지		3		3
	기후와풍토		3		3
	물과바다		4		4
	섬의모습		3		3
	숲과동식물		5		5
	인문경관		4		4
	지역산물		7		7
	지형과지질		6		6
	환경인지		3		3
자연환경 합계		40		40	
총합계		14	398	303	715

2) 주요 화면

① 인트로무비

바다의 해가 뜨는 장면을 소재로 인트로 무비 작성



② 다도해 통합 시스템 메인 : 키워드, 디렉토리, 미디어어 접근 검색 제공, 관련사이트 링크, 로그인



④ 정보입력 : 관리자 모드를 통한 단계별 문화정보 입력



③ 결과검색 : 웹사이트, 문서류, 이미지 순으로 관련문서 검색 검색된 결과에 대한 설명과 관련 원시데이터를 다운 로드 할 수 있다.





⑤ 압해도 이야기 : 압해도에 대한 소개 및 문화 분류체계에 대한 소개를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



⑥ 섬문화정보관 : 해당 섬(압해도)에 대한 상세 검색 기능



⑦ 게시판 : 참여마당



그림 1. 부가지원서비스모델

⑧ 문화/관광지도



3) 차후 시스템 확장방향

현재의 시스템은 신안군 압해도를 사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 후 지속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아래 도표와 같은 명실공히 "다도해문화정보통합시스템"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① 다도해문화정보시스템 도메인 :

Http:// www.islands.or.kr

② 주 메뉴 : 주 메뉴에는 네 가지의 주요기능으로 구성 될 예정이며 향 후 시스템 발전에 따라 그 기능이 추가될 예정

- 도서문화용어사전(Dictionary) : 도서지방문화에 대한 낱말사전으로 독특한 방언이나, 문화전문 용어 등을수록
- 다도해시소러스(Thesaurus) : 다양한 도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소러스를 완성하여 검색엔진을 지원
- 부가서비스(Addition Service) : 다양한 기능의 부가서비스 지원

4. 결 론

본 논문의 주된 내용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신경향에 부합하는 새로운 분류체계를 연구한 것으로, 연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의 연구를 통해,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신경향에 부합하는 새로운 분류체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 듀이십진분류법을 지양하고 인터넷 검색시스템 정보 분류 방식을 따랐으며,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통합 또는 세분화가 가능한 열린 분류안을 지향했다. 또한, 기획성 분류군을 설정하여 지역 및 문화의 특수성,

사용자의 개인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제별 분류와 기획성 분류를 혼합한 형태로 구성하는 것을 권했다. 주제별 분류안은 학술적으로는 유용하지만, 데이터가 항목별로 균등하게 반영되기 어렵고 일반인의 관심을 다양하게 담아내기 어렵다. 따라서 기획성 분류를 가미함으로써 문화의 특징을 살려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획성 분류에만 치중하면 체계성을 상실하기 쉽기 때문에 양 방안을 절충하여 문화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분류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가장 보편적인 기술적인 표준화 방안을 벗어나 실제 자료를 조사하고 현지의 실정에 맞는 항목 중심과 일반인이나 연구자 모두가 보다 쉽고 다가설 수 있도록 실제적인 사항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는 항목 설정을 위해서 대·중·소 삼단계 분류를 취했다. 정보화시대에는 복잡하고 구체적인 단단계식 정보접근 방식의 탈피를 원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 [1] 강봉원, 1995, "고고학에 있어서 공간분석의 일례: 방안식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 제19집.
- [2] 강준목·서만철·배상호·이성순, 1997, "문화재 보존을 위한 수치자료 구축과 공간분석",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논문집, 제5권 제2호, pp.55-63.
- [3] 강준목·윤희천·배상호, 1996, "수치정보에 의한 문화재의 공간분석", 한국측지학회, 제14권 제2호.
- [4] 나승만, 1990, "전남지역의 들노래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 1996, "구비문학과 분포권", 도서문화, 제14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pp.411-415.
- [6] -----, 1996, "민요의 분포권과 현장체험", 도서문화, 제14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pp.363-366.
- [7] 민속학회, 1996, [한국민속학의 이해], 문학아카데미.
- [8] 민화기, 1991, 개인용컴퓨터를 이용한 전통마을 공간구조분석에 관한 연구:안동 하회마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박성룡, 2000, "지역사회의 문화지도-청도의 서원, 제실, 정자를 중심으로-", 민속학연구 7호, pp.125-155
- [10] 박현욱·문병채, 1998, "GIS를 이용한 한국 기후지역 구분", [대한지리학회지], 제33권, 1호, pp.125-155.
- [11] 송병호, 1999, [멀티미디어 정보검색], 나남출판.
- [12] 송인성·문병채, 1994, "GIS 공간조작 기능을 이용한 최적입지 선정 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개발연구(전남대)], 제37권, 1호, pp.111-145.
- [13] -----, 1998, [지리정보분석기법], 문운당.
- [14] 신순호, 1998, 도서지역 문화자원의 활성화 방안, 도서문화, 제16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pp.393-399.
- [15] 유사라, 1999, [정보학연구와 분석방법론], 나남출판.
- [16] 유재현, 1996, "정보영역설정의 과제와 의의", 도서문화, 제14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pp.357-361.
- [17] 이광규, 1975, "은거제도의 분포와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제7집, pp.1-15.
- [18] 이기갑, 1986, [국어학업서II- 전남남도의 언어지리], 국어학회.
- [19] 이기철, 1996, 문화자원과 지리정보체계(GIS), 도서문화, 제14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pp.377-380.
- [20] 이보형, 1983, "메나리토리 무가·민요권의 음악문화", 한국문화인류학, 제15집, pp.233-249.
- [21] 이영문, 1996, "유적 분포로 본 문화영역과 생활권-전남지방 묘제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제16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pp.397-410.
- [22] 이재기·최석근·이현직, 1994, "지형공간정보체계를 이용한 문화재 복원의 자료기반 구축",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논문집, 제2권 제2호, pp.55-65.
- [23] 이헌중, 1998, 영산강 유적 구석기유적의 분포와 연구방법-나주동강면 신발건 유적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pp.189-219.
- [24] 전경수, 1984, "거주지의 확산과정: 전남진도의 경우", 한국문화인류학, 제9집, pp.39-65.
- [25] 조경만, 1996, "서남해 도서지역 연구의 동향과 문화영역연구의 필요성", 도서문화, 제16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pp.189-219.
- [26] -----, 1996, "서남해지역 문화자원의 활성화 방안", 도서문화, 제16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pp.401-417.
- [27] 조혜종·전경숙, 1992, 인문지리학 요론, 전남대학교 출판부.
- [28] 초성락, 1992, "한국고고학의 연구방법론 시론", 전남사학, 제6집
- [29] -----, 1998, [한국고고학의 방법과 이론], 학연문화사.
- [30] 최희만, 2000, "전통취락의 연구동향과 과제", 지리학론구, 제20호, pp.157-170.
- [31] Bromberger, C., Dossetto D., Schippers T. K., 1982-83. L'ethnographie en Europe: coups d'oeuil retrospectifs et questions ouverts", L'ethnographie en Europe, Revue trimestrielle vo.1, no. 1 a 4.

- [32] Dostal, Walter, 1984, "Toward Ethnographic Cartography: A Case Study", Current Anthropology, Vol. 25, No. 3.
- [33] Goddchild, Michael F. and Karen K. Kemp, 1990. [NCGIA Core Curriculum - Introduction to GIS], National Center for Geographic Information and Analysis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 [34] Jones, Christopher B. 1997.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s and Comaputer Cartography], Longman.